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최원빈	영문	WONBIN CHOI
파견 국가	필리핀		파견 대학	Mapúa University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환학생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도우미 활동을 통한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고, 우리학교로 오는 교환학생 친구들로부터 외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실력 향상에 기대하고 지원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지인을 통해 당시 우리학교에서 파견대학으로 간 교환학생과 연락이 닿아 기숙사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교환학생과의 연락을 통해서 기숙사 신청을 하였고, 필요한 물품 리스트나 필리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서 짐 싸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자는 필리핀에 입국하고 30일 동안 무료이며 연장할 때는 필리핀 내에서 여행비자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행비자로 필리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기에 SSP를 꼭 신청해야 됩니다. SSP 관련 서류들과 신청은 현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공권은 싸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저의 경우 항공권을 늦게 구입하여 출국 한 달 전 대략 50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수강신청에 필요한 강의 목록 자료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수강신청을 해도 되고 필리핀 도착해서 신청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학교로 교환학생 온 마푸아 학생들에게 과목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파견 대학에 가기 전 수강할 과목들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계획해 두어도 그 학기에 듣고 싶은 강의를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마푸아대학교는 미국 공대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대학교입니다. 필리핀에서 공과대학으로 알아주는 학교이고 학생들이 굉장히 영리하여 필리핀에서 항상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푸아대학은 마푸아공과대학 이었으나 최근 마푸아대학으로 바뀌어 공학학과뿐만 아니라 인문계열학과도 생겨났습니다. 마푸아 대학은 본교 1개, 분교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교는 Intramuros 위치해 있으며 우리학교 테크노관 크기의 건물 안에 많은 학과들이 나뉘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학과들은 본교에 있으며 저는 본교에서만 수업을 들었습니다. 마푸아대학은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1년에 4팀으로 학기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제나 시험 등이 매 주마다 있었고, 팀과 팀 사이에 2~3주 방학이 있습니다. Intramuros 안에 학교, 학생들이 많고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서 바깥지역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됩니다.

필리핀은 상당히 더운 날씨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오후에 햇빛이 강하여 피부가 따갑다고 느꼈었고 이러한 날씨 탓에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강의실이나 건물 내부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셔츠나 긴바지를 입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더 덥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소나기 잠깐 내리는 것

빼고는 폭우는 볼 수 없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농담이나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들은 타갈로그를 사용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기가 짧다보니 과목들이 보통 1학점 당 1.5시간으로 되어있고, Lab이 포함되어있는 과목들은 학점 당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추천 과목 📖 SS14(필리핀 역사)

마푸아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었던 과목입니다. 필리핀 역사 영화 시청과 Field Trip이 있고 순서대로 학생들이 준비한 ppt 자료로 발표 수업을 하며 교수님께서 추가설명과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제가 사용하였던 기숙사 (Herald Dormitory)는 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마푸아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대학생, 고등학생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방은 같이 온 한국인 1명, 필리핀 고등학생 1명 그리고 대학생 1명, 4인실에서 지냈습니다. 온수, 식수, 와이파이의 무료이며, 에어컨이나 전기를 사용한 만큼 전기비를 따로 내야 합니다. 물가는 한국보다 아주 조금 저렴한 편이고, 우리 학교 처럼 기숙사에서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매일매일 음식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식비는 한 끼에 대략 100 - 150 페소(약 2500원 - 3500원) 사용하였습니다. 한 달 40만원 용돈으로 지냈으며 비자 값, 기숙사 전기료는 용돈 내에서 해결하였습니다.

한 달 기준 기숙사비 : 7350 페소, 전기사용료 : 평균 600 - 800 페소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 한 사람당 마푸아 학생 1-2명씩 버디를 이어줍니다. 우리학교나 한국으로 교환학생 왔었던 친구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버디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저는 교환학생 오기 전 국제교류도우미 활동으로 필리핀 친구들과 알고 지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처음 친해지기 전에는 많이 부끄러워하고 낮을 가리지만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친절합니다. K-POP 의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화적 차이는 별로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시티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카드사용이 거의 없고 보통 현금을 들고 다니고 현금으로 계산합니다. 걸어서 10-15분 정도 되는 곳에 시티은행 ATM이 있어서 수수료도 적게 나가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필리핀 현지 학생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알려줄 것입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처음 교환학생을 가기 전 얻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어회화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고, 둘째, 타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셋째,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 이것들을 다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경험에서 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며 살아왔지만,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재밌게 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영어만 사용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환학생이 좋았던 점은 영어를 배웠던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공지식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저의 과에서 열리지 않는 새로운 전공과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필리핀 뿐 아니라 스페인,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 마푸아 대학교 >



< 필리핀의 어떤 해변 >



< 생일 파티 >



< 학교 내 행사 >



< 인도네시아 여행 >



< 결혼식 >